

environment NEWS

4대강 수질개선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4대강의 좋은 물 달성비율이 '06년 76%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12년에는 86%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유역 중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총 1,281개)은 현재 230개가 완료되었으며, 625개는 공사 중으로, 전체 사업 공정률은 47.5%로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보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4대강 16개 보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10. 7) '수질통합관리센터'를 통해, 4대강 수질을 상시 감시하는 한편 일기예보와 같이 수질오염을 예보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관리가 쉽지 않다는 인식하에, 점오염원과 함께 비점오염원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는 개발단계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4대강 유역에 시범설치·운영중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처리시설, 생태유수지,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보 설치, 하천유량 증가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변화된 하천환경에 적합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점차 확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GS칼텍스(주)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생태관광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회공헌사업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주)가 '11~'12년 2년간 4억원의 생태관광 후원증서(voucher)를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탁하면, 환경부와 공단은 약 2만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태관광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대상과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아동을 위한 국립공원 숲치유 프로그램,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생태체험·교육 중심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저소득층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50% 지원) 등이다.

환경부와 공단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장애자,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관광 바우처(voucher) 제도'를 '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 자연복원, 문화, 웰빙 등 4개 유형 78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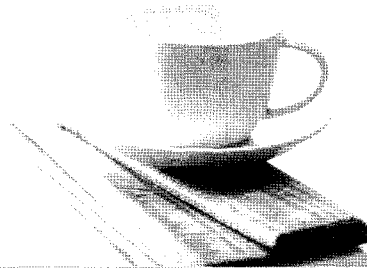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활성화를 통해 후원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나눔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산업체, 인터넷 무역으로
수출 50억원 이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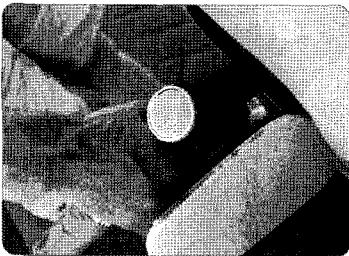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문기관인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김상일)는 우수 환경기술·제품의 해외 홍보에서 바이어 발굴에 이르기까지 수출무역 전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산업 전자무역시스템(www.ecotrade.or.kr)」을 지난해 신규 오픈하고 약 350억원의 수출상담 성과 및 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환경산업 전자무역시스템 ECOTRADE는 인지도가 낮은 국내 환경산업체의 인터넷 홍보기반 구축 및 글로벌화 도모를 위하여 영문 e-Marketplace와 국문 무역포털로 이루어져 있으며, e-Marketplace에는 약 220개의 환경산업체와 920개 환경기술·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바이어·셀러를 위한 신뢰마크 서비스, 세계시장동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자무역 EDI서비스를 도입하여 환경산업체의 수출입 신고, 신용장개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무역 업무를 정보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수출마케팅 e-Biz 지원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수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 OO구 OO동에 거주하는 OO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 및 이익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화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화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증기 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밥상에 숨겨진 진실'



환경부는 음식물이 생산부터 수송, 유통, 조리까지 한 끼 밥상을 차리는데 소모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구한 결과, 우리 가족(4인기준) 한 끼 밥상을 차리기까지 4.8kgCO₂e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나무 한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CO₂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평균 15천톤('08년 기준)으로 전체 음식량의 약 1/7에 이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8조원에 달한다. 한 가정(4인 기준)에서 연간 버리는 음식물쓰레기(438kg)로 온실가스가 724kgCO₂e 배출되며,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5회 왕복 운행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1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고,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대기업급식소 등 발생원별 맞춤형대책을 확산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성적표지 신규인증제품 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지난해 12월 제3차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 기업, 14개 사업장의 10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삼성전자의 개인용컴퓨터(DM-V200), 노트북 컴퓨터(NT-R540)와 아모레퍼시픽의 여성용 화장품인 마몽드 에이지컨트롤 스킨스프린[150ml] 제품이 컴퓨터 및 스킨케어 제품군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10년 한 해 190개의 제품이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전년(11개 제품 인증)대비 170%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탄소라벨링을 추진 중인 전세계 12개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많은 인증제품 수로 한국의 선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각 기업이 탄소라벨링 인증을 통해서 기업의 저탄소 경영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탄소감축 의지를 표명한 결과로 보여지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탄소상품이 본격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 재비산(再飛散) 먼지도 실시간 측정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再飛散) 먼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도로에 대해 바로 물청소나 진공청소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도로 먼지 이동측정차량을 운행한다.

도로 재비산 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하여 날리는 먼지로 전체 미세먼지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4,327억원 발생하고,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연간 11,127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40\mu\text{g}/\text{m}^3$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로 재비산 먼지 측정차량을 제작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도로 재비산 먼지 이동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가연성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및 관리 정보 실시간 제공

환경부는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조·생산자의 고형연료제품 생산 및 유통의 안정성 확보, 정보공유, 체계적 관리, 적정 투자 유도 등을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을 구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 정보, 품질인증 및 통계 정보 등이 입력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통의 안정성과 합리적 투자를 유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생산 및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RPS) 도입 등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생산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12년부터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확대할 계획이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 관련 기업 등은 정보공유를 위해 법인회원으로 가입하고,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2011년 한국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해 12월 2일 상의회관에서 1,6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한국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4.2%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실장도 금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 되겠지만 체감경기가 좋아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국장도 토론을 통해 금년 우리경제의 과제를 경기회복세 지속, 경제체질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속성장 기반 강화 및 미래 대비로 정의하면서, 최근 생활물가 불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